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1.(수) 11:00 (지면) 2026. 11. 12.(목) 조간 배포 2026. 11. 11.(수) 06:00

버려지는 굴껍데기를 발전소에서 탈황제로! 수산부산물 자원화의 새 길 개척

- 국내 최초 굴패각 활용 발전용 탈황제 약 2만 톤 공급계약 체결
- 발전산업과의 협력으로 수산부산물 자원화 확대 및 탄소 저감·ESG 경영 실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12일(목) 경남 하동군의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개최된 '발전소 탈황용(脫黃用) 굴패각 상용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굴패각의 발전용 탈황제(脫黃劑) 상용화를 축하하고, 수산부산물의 활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용 탈황제 2만 톤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남부발전, 경상남도, 통영시, 수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상용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용 탈황제는 발전소 배출가스 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석회석을 일부 대체하는 제품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굴패각을 자원화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수산부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원화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발전산업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과 ESG 경영을 실천하는 산업 간 자원순환 협력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공급계약은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굴껍데기가 발전산업에 필요한 자원으로 거듭나고, 수산부산물 자원화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부산물의 활용처를 넓히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어촌의 환경 개선과 부가 소득 창출, 기업의 탄소 저감과 ESG 경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희정 (051-773-5630)
		담당자	사무관	오성택 (051-773-56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참 고 탈황제 사진



